

특별특리소

김제시,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김제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으로 정하여 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방지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공원녹지와 및 경야지 역 18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지난 1월 27일 서류심사 및 체력검정을 실시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43명을 선발하였으며, 지역지리와 실정에 밝은 산불감시원 35명을 해당 읍·면·동에서 자체 선발한 후 2월 1일 김제시청 3층 대화의실에서 산불방지 발대식을 개최했다.

황배연 안전개발국장은 산림과 숲을 보호하는 산불감시원·산불진화대 역할의 중요성과 산불재해로 야기되는 인명피해와 안전사고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교월동 시정설명회 개최

민선 6기 3년차를 맞아 힘찬 비상! 희망찬 미래창조'를 시정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2016년 한해를 힘차게 시작하고 있는 김제시가 올해 시정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진행중인 읍면동별 순회 시정설명회를 지난 4일 교월동에서 가졌다.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이날 열린 교월동 시정설명회에는 도의원, 시의원 및 유관기관·사회단체장과 함께 지역주민 400여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이날 시정설명회는 박상문 교월동장의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지역우수사례 발표, 도·시의원 인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주민의견 청취시간에 제안된 주민들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들에 대하여 이진식 김제시장은 성실한 답변과 명쾌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참석한 주민들의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상동지구대 설 특별방범활동

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 상동지구대(대장 임정택)가 설명절 전·후 특별방범활동을 실시해 민생차단에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4일 상동지구대에 따르면 설날 전후 반집을 노린 범죄와 전동시장, 금융기관, 편의점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 등에 각종 범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1.25부터 오는 2.10까지 설날 전후 특별 방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단계 기간에는 금융기관 등 범죄 취약지 방범시설 등 면밀한 방범진단을 통해 시설주에게 미비점을 보완토록 권고하고 주민상대 각종 사건사고 대비요령을 조언하는 '문안순찰'로 주민의 자위방범 역량을 높이는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2단계 기간에는 이미 실시한 방범진단 및 분석을 바탕으로 취약지 위주로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협조 지속적인 반복순찰과 목검문 등을 통해 예방 활동을 통해 범죄대응역량 제고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교졸업식에 정읍경찰관 댄스공연

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는 2016년도 정읍여자고등학교 졸업식이 열린 4일 오전, 정읍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은 졸업생을 대상으로 흥겨운 댄스 공연을 선사하는 등 이색 졸업식을 실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는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을 위하여 정읍경찰서, 정읍교육지원청, 패트폼팀이 참석하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건전한 졸업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하였고, 연이어 정읍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은 졸업생들에게 장미꽃을 일일이 나누어 주며 졸업식을 축하하고, 여중생 5명으로 구성된 학교폭력예방댄스 동아리(IPK)와 전담경찰관이 함께하는 댄스공연을 선보여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행운권을 추첨하여 학생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며 졸업생과 경찰관이 하나 되는 문화축제의 장을 마련하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에 응급의료센터 생긴다

'서남부권 응급진료체계구축사업' 지발위공모 선정... 3년간 29억원 투입

정읍시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공모에서 전북 서남부생활권(정읍, 고창, 부안)의 '골든 타임 사수' 서남부권 광역 응급진료체계구축사업(이하 응급진료체계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4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6년 생활권 선도사업 선정 착수 워크숍에서 인증서를 받았다.

이는 2014년 '동상동풍! 오순도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과 2015년 '베리굿 소스산업육성사업'에 이은 3년 연속 선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고창 부안군과 함께 2018년까지 3년간 29억원(국·도비 25억원)을 투입해 서남부 생활권 내 응급의료 진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김생기 시장은 "이 사업은 서남부권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환경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2년전부터 중점 핵심사업으로 분류 관리해오고 있는 민선8기 공약사업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은 정읍아산병원을 거점으로 한 응급의료센터 구축이다. 긴박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읍면동 거점단위 순회 방문 진료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사고 발생 시 이송차량 도착 이전까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마을이장 중심의 응급의료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응급처치 능력

을 높이기 위해 생활권 내 보건소와 연계하여 응급의료 프로그램을 개발, 지역주민 대상의 응급의료 교육도 실시한다.

시는 이와 같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읍아산병원과의 협의는 물론 전북도와 지역발전위원회의 컨설팅도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전북 서남부권은 노인 인구가 많고 폭거노인 비율이 높아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생활권 내 응급의료센터 인 부재로 응급환자 진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에 따라 이러한 지역특성에 맞는 최적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이 건강에 자신감을 갖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버스승강장 발열의자를 이용한 한 주민은 "날이 추운 겨울에는 다리가 아파도 벤치가 너무 차가워 앉기가 싫었는데 새로 설치된 발열의자에 앉아 보니 뜨끈뜨끈한 게 너무 좋다"고 큰 호응을 보였다.

부안군 버스승강장 탄소섬유 발열의자 설치 '호응'

한 겨울에도 평균 30℃ 유지 · 새벽 5시30분 ~ 저녁 9시 30분 운영

부안군이 버스승강장에 탄소섬유 발열의자를 설치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동절기 시내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부안 상설시장 및 서부터미널 등 버스승강장 2개소에 탄소섬유 발열의자를 설치했다.

발열의자는 버스승강장 의자에 탄소소재로 된 열선을 삽입해 전기를 공급하면 탄소소재가 발열 때 따뜻해지는 원리를 이용해 제작됐다.

한 겨울에도 평균 30℃를 유지하며 시내버스 운행시간인 새벽 5시30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운영된다. 더욱이 특히 발열의자는 누전 발생 및 감전의 우려가 없고 전기료도 일반 발열제품보다 25%가량 절감되며 인체에 해로운 전자파 발생도 미미하고 원적외선까지 방출 되는 등 내구

성 높은 반영구적 제품이다. 버스승강장 발열의자를 이용한 한 주민은 "날이 추운 겨울에는 다리가 아파도 벤치가 너무 차가워 앉기가 싫었는데 새로 설치된 발열의자에 앉아 보니 뜨끈뜨끈한 게 너무 좋다"고 만족해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시범적으로 설치한 발열의자에 대한 반응을 살펴 내년부터는 터미널 등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위도 띠벳놀이 공개행사기 음력 1월8일(정월 초사흘날)인 10일 부안군 위도면 대리마을에서 펼쳐진다.

부안 위도 띠벳놀이 10일 열려

이른 아침 대리마을서 띠벳굿 · 제물진설로 시작

마을의 안녕과 풍어(豊魚)를 기원하는 주민들의 염원을 띠베에 실어 바다에 띄워 보내는 풍어제인 부안 위도 띠벳놀이 공개행사가 음력 1월8일(정월 초사흘날)인 10일 부안군 위도면 대리마을에서 펼쳐진다.

중요무형문화재 제82-3호인 띠벳놀이는 170여 년 전부터 주민들이 임금님 진상품인 '칠산조기'가 많이 잡히는 대리마을 앞 칠산바다에 산다는 용왕에게 만선과 행복을 적은 띠지와 오색기, 허수아비들과 어선 모양의 띠베를 제작해 바다에 띄우는 풍어제이다.

띠벳놀이는 이른 아침 대리마을 풍물패의 띠벳굿(오방진굿, 풍년굿)과 함께 동편 당산제를 올리고 당췌봉 정상의 원담(소원을 비는 곳에 올라 제물을 진설하면서 시작된다.

원담에 오르면 화주 이종순(80) 보유자의 독주를 시작으로 무너

안병희(58) 씨의 산신굿 성주굿 등 무탈과 풍어를 기원하는 풍물패의 굿으로 진행된다.

원담에서 굿과 제사를 지낸 뒤 마을을 한 바퀴 돌고 바다가 보이는 마을 앞 부두에 도착하게 되며 이때 원담에 오르지 않은 마을 주민들은 띠베와 제음(허수아비)을 만들게 된다. 띠베는 띠뽕과 쫄, 싸리나무 등을 함께 엮어 길이 3m, 폭 2m 정도의 크기로 만들고 배 형태를 갖추고 띠베에 주민들의 소원문도 가득 담는다.

이후 마을의 중심이 되는 주산을 중심으로 동편 용왕밥 던지기, 동편 당산제, 북편 주산 신령제, 서편 당산제, 용왕밥 던지기, 우물굿 등을 하며 주산돌기를 마친 뒤 마을 앞 부두에 도착, 용왕굿을 하며 신명난 한판을 벌인다.

용왕굿을 마친 뒤 띠베는 모선과 연결해 서해 먼 바다로 띄워 보낸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설 벽골제서 다양한 행사

목공예 · 선비문화체험 등

김제시는 '설'명절을 맞이하여 설연휴기간인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김제시민과 귀성객들의 오감만족을 위해 벽골제일원에서 다양한 특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행사는 벽골제 연중운영프로그램 및 설연휴 프로그램, 설날 특별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벽골제 연중운영프로그램으로는 목공예, 쫄췌공예, 명인학당의 선비문화체험과 날뛰기, 그네뛰기, 고리던지기, 후호놀이, 제기차기, 팽이돌리기 등 전통놀이와 아리랑문학관 창작스

튜디오에서 서예, 도자기, 천연염색, 한국화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설연휴기간 상설프로그램으로는 연날리기, 벽골제 전통마당과 상용앞에 포토존이 설치되고 추러스와 오랑귀 등 푸드트럭이 운영된다.

특히 설날 당일인 2월 8일에는 부호, 제기차기, 고리던지기 등 전통민속놀이 올림파이 14시부터 진행되며, 벽골제 추억의 풍물대회가 18시부터 벽골제 명인학당에서 전주mbc주관으로 개최되고 벽골제 야간경관조명과 연계한 벽골제 오색불빛의 향연과 모닥불 및 가래떡 나눔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featuring various bottles and gift sets. Text includes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 '부안강산병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러운 맛에 뒤끝이 없도록 한방 술로 빚었습니다.' It also lists several gift set options with prices.